

다양한 선발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자율로

민 경 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 입학관리처장



우리나라 중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라는 중압감 때문에 일반인들은 중등교육의 본래 목표에 대한 생각조차 유보하여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해방 이후 대학입시제도는 대학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대상을 선발하고 중·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더불어 변천 과정을 거쳐왔다. 1985년 교육개혁심의회가 입시제도 개선을 건의한 이후 1991년 4월에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학생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대학의 학생선발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기능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내신성적, 대학수능능력시험, 각 대학의 특

성에 맞는 다양한 자율적 선발방법이 마련되었다.

여기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은 대학교육을 받는 데 기초가 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학업능력 및 전공 계열에 필요한 학업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언어와 수리·탐구 및 외국어(영어) 영역별로 고등학교 과정의 여러 교과목의 공통적인 목표와 내용을 망라한 통합교과적 소재를 가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념과 성격을 가지고 1994학년도부터 실시하여 온 수능시험은 그동안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학생선발의 객관적 자료로 제공되었고,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고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점진적 개선을

이루어 오는 가운데 긍정적으로 정착되어 왔다고 본다.

수능시험은 그동안 발전적으로 개선되어 오는 가운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수능시험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논술고사, 면접·구술시험과 함께 대학입학 전형에서 활용되는 평가도구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의 입학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199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는 수능시험이 학생의 특성과 잠재능력을 측정하는 절대적 수단인 것처럼 인식된 면이 있다. 지금까지의 본고사나 수능시험은 단지 몇 시간 만에 한 개인을 평가해버리고 전국의 모든 학생을 일렬로 줄 세웠다. 특히 몇 점의 점수 차이가 학생들 사이의 절대적인 능력의 차이인 것으로 이해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능시험은 학생의 잠재적 수학능력의 평가로서 일정 수준의 수학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동등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험생에게 성적을 몇 점 더 높이도록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수험생 개인별 특성 및 잠재능력의 차이는 학생부, 논술고사, 면접·구술시험 등 수능시험과는 다른 다양한 측면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능시험은 국가 전체적으로 학생들 사이의 객관적인 상대적 성취 결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입학자격시험의 관점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 대개 한번의 시험에서 얻은 점수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는 대학입학제도에 익숙해져 있어서 학생 선발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현재

에도 합격의 가능성을 쉽게 줄세울 수 있는 한 가지 점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의 의미가 묘해진 지금도 수석 합격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일선 고등학교에서의 진학지도나 사설 입시기관과 언론에서 발표하는 합격 가능의 척도는 대개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비교하기 손쉬운 수능시험 수치 하나를 기준으로 삼는 추세였다. 그리고 각 대학 자체에서도 수능점수를 이용하여 그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식시켜온 것도 사실이다.

사실 그동안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다 보니, 일선 고등학교에서 직접 진학지도를 위한 자료 정리가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여러 사설 입시기관은 자체적인 자료분석을 통하여 수능시험 점수에 의한 나름대로의 합격선 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나 언론에서 이 사설 입시기관들의 자료에 무게를 실어 줌으로써, 수험생들의 진학지도가 사교육 기관과 언론에 의해 주도되는 인상을 주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도 갖게되다 보니, 올바른 진학지도를 위해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수능시험에 관련된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집계하여 발표함으로써 수험생이나 일선 교사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단계에 이르렀다.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이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입시자료의 공개는 수험생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자료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

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또한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들은 여러 가지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대학의 1997학년도 모집단위별 최종합격자의 수능시험 평균 점수와 학생부 성적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특히 일선고교에서는 진학지도를 위해서 공신력있는 자료들이 필수적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바람직한 수능성적 시험의 공개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각 대학마다의 다양한 선발방법과의 조화에 관한 내용이다. '95년의 5·31 교육개혁방안의 '새 대학입학전형제도'에서 '실질적인 복수지원 기회 보장', '전형기준의 다양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원칙적 보완관계의 설정', '입학전형의 대학 자율화' 등이 구현방안으로 제시된 이후, 학생선발의 방법을 각 대학마다 매우 다양하게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교육적인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오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학생선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학생부, 수능시험, 논술고사, 면접·구술시험을 활용하며, 교과 및 비교과 과목들의 선별적 적용, 과목별로 영역별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수험생 개인의 특성과 잠재적 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전형요소의 한 대학에 대한 단순한 총체적 평균점수는 그 의미 부여가 어려워진다. 특히 수능 또는 학생부 점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선발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반영되더라도 놓여진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자 등 특별

전형의 종류와 단계별 사정 등 기타 여러 가지 반영 형태에 따라 반영의 의미가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의 경우도 대학마다 등급, 급간점수, 반영교과목, 가중치, 활용방법 등이 서로 전혀 다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산출 방법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인가는 각 대학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수능시험이 대학 합격 여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정당화시킬 가능성에 경계하여야 한다. 수능시험은 수험생을 평가하는 하나의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험생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공식기관에 의한 수능시험 평균점수의 발표는 점수에 따라 전국 각 대학별, 모집단위별 서열화의 공인화로 비춰지게 되고,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선발방법 등을 통해 이 평균점수를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므로, 선발방법 자체도 교육적인 차원이 아닌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결국 자신의 능력을 학생부 등 기타 전형 요소보다도 수능시험 점수에 비중을 더 두게 되면,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도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수능시험의 몇 점 차이가 학생들의 능력에 관한 절대적 차이가 아님에도, 다만 소숫점 차이라도 일단 서열화의 순서가 정해지면 그 영향은 매우 클 수도 있다.

셋째, 입학관련 자료 공개에도 대학 자율화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 수험생들에게 입학정보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

해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취합하여 내용을 때때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해야 한다. 평균점수 산출방법도 앞에서 언급한 각 대학의 다양한 선발방법에 따라 대학별로 선택하여 다양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는 전국 각 대학의 서열화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공개 여부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단순한 몇 가지의 대학별 점수자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각 대학의 종합적 입학요강 안에서 하나의 소개자료로 포함시키는 것이 각 대학별로 내놓은 다양한 전형방법에 따른 점수자료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수험생의 능력을 하나의 잣대, 특히 하나의 점수로 단순화시켜 일렬로 줄 세우는 데 익숙해져 있는

현실로부터 빨리 탈피하여, 한 인간의 특성과 잠재력을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찾아내어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열린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는 고도의 창조적인 지적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민경찬/연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캐나다 칼튼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수학과 교수로서 입학관리처장을 맡고 있고, 한국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회장, 한국 수학사 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강사, 대한수학회 이사, 제5차 국제퍼지시스템학회 세계대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Exponential laws for regular ordered Banach spaces", "Fuzzy rough sets and topology" 외 다수를 발표했다.